

# 순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로드맵 수립

## 4차산업혁명위 시민체감형 미래산업 발굴

### 지역 특성 살린 신성장 전략사업 방향 정립

순천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한 로드맵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 전략사업 추진 방향을 정립했다.

25일 순천시에서 따르면 최근 올해 첫 '순천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4차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 수립에 대해 논의

했다.

순천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관련 산업 전문가, 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4차산업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고 미래먹거리 산업을 발굴해 순천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 및 질의응답과 순천시 영역의 추진 방향 제

언, 심포지엄 추진 논의, 분야별 분과위 구성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함께 전남 VR·AR 제작 거점센터 구축사업 등 추진 중인 3개 사업에 대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운영 등 추진예정인 6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도 점검했다.

아울러 추진예정인 '순천형 4차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발굴 등에 집중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성장 전략사업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들은 용역의 구체성 및 차별화 방안을 주문하

는 등 전반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밖에 하반기 추진예정인 4차위 주관 심포지엄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분과위 구성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순천시 미래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을 '순천형 4차산업혁명 추진 종합계획 수립'에 접목하는 방안을 마련해 미래산업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 고흥,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박차

### 여가활동 공간마련·건강증진 기대

고흥군이 바다비 국민체육센터, 동강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고흥 전용 탁구장 건립, 김태영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고흥군에 설치된 체육시설은 거름야구장, 박지성 공설운동장, 팔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김태영축구장 등 9곳, 각 읍·면 게이트볼장 27곳이 있다.

고흥군은 민선 7기 들어 도화면 당우리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인조잔디 구장과 관리실을 갖춘 도화그라운드 골프장을 조성하고 고흥을 행정리에 20억 원을 투입해 총 6면 규모의 인조잔디 구장을 갖춘 게이트볼 전용 구장을 조성하는 등 체육 인프라가 대폭 확충됐다.

아울러 박지성 공설운동장의 구조물을 보강하고 건물 내부의 리모델링

과 도색 및 광장 포장에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낡은 환경을 새롭게 정비하고 안전시설물도 점검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5면과 도양 테니스장 4면에 사업비 19억 원을 투입, 하드코트로 전면 교체하는 등 총 226건의 신축 및 개보수 작업을 마쳤다.

현재 전용 탁구장과 바다비 국민체육센터, 동강 소규모다목적체육관을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 113억 7,8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2월과 4월에 준공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면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주민 건강증진,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진중언 기자

##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자 18명 최종 선발

여수시가 지역 대표 관광상품인 '낭만포차' 제6기 운영자를 최근 음식품평회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종 선발인원은 18명으로 부문별로는 사회적 약자 3명, 인근 지역주민 3명, 청년층 7명, 일반시민 5명으로 선발됐다.

여수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전국의 식품·관광 등 관련학과 대학교 수 10명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 평가를 진행했다.

최근 여수정보과학고 조리실에서 열린 이번 음식품평회에는 1차 합격자 52명이 등록했으며, 60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주메뉴를 조리하는 열띤 경연을 펼쳤다.

최종 선발된 18명의 제6기 운영자는 운영협약서 체결 후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자 선발을 위한 음식품평회에서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치고 있다.

/여수시 제공

## 보성, 내달 9일부터 관내사업체 조사

보성군이 내달 9일부터 관내 사업체 5,115개를 대상으로 2022년 전국사업체 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계청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체 조사는 사업체의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계자료를 만들어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 보성군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사업체 5,115개소로 조사 항목은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체명,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등 총 10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12명의 조사요원이 투입

되며,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한다. 군은 응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화 조사나 배포조사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보성군은 정확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위주로 조사요원을 선발했다. 또 조사지침 교육을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등 원활한 사업체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쳤다.

보성군 관계자는 "지역 내 일자리수를 정확하게 파악해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체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백종두 기자

## 광양,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 최대 3천만원 이자 3% 지원...자금난 해소 기대

광양시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광양시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양시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시와 협약이 체결된 지역 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의 용자금 이자 3%를

광양시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대상은 광양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해 온 소상공인이며,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용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0~2021년에 이미 대출받은 1,0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 예산은 7억5,000만 원이다.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는 용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이자 지원을 제한했던 규제를 없애는 대신 최대 3회, 최대 6년까지만 지원받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시정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된다.

이화영 지역경제과장은 "소상공인 용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순천만국가정원 설 연휴 별빛산책 개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2월 2일까지 지역 대표 겨울축제인 '별빛산책'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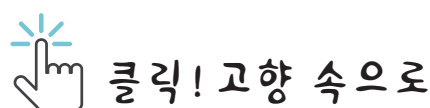
지난달 23일부터 열린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산책'은 점등식 후 한달만에 2만여 명이 찾아와 인기가 뜨겁다.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나무도감원에는 '마법의 빛으로 물든 꿈의 정원'을 주제로 아바타기든, 빛의 놀이터 등 8가지 주제의 이색 공간이 펼쳐진다. 물새놀이터 울타리 부근에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홀로그램 화면이 반응하는 '홀로 포트레트'와 인공 눈 포도존이 마련돼 있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전문 서커스 연기자의 역동적인 볼쇼이 26일부터 매일 3회 공연해 관람객들의 추위를 잊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명절을 맞아 한복착용자 무료입장, 꽃차 나누기, 가족사진 촬영, 한방백·한방차 무료나눔, 전통놀이 한마당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펼쳐진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 곡성명품농업대학, 사과 전정 전문가 양성교육

곡성명품농업대학이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현장실습을 진행하며, 사과 전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올해 곡성명품농업대학은 농업인 28명을 대상으로 총 102시간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은 교육생 농장에서 다양한 실습 교육 위주로 운영되며, 교육 막바지에

전정 실기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시험에 통과하면 전문 전정 지원단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명품농업대학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농업 경쟁력 향상에도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 순천제일대, 성과확산 포럼 열어

순천제일대가 지난 24일 정부재정지원사업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년간 진행된 혁신지원사업 및 2년간 진행된 산학협력 취업패키지과정 웰니스사업 성과공유와 제주한라대와 전주비전대의 재정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교양인성교육센터, 교육과정지

원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학습정보지원센터 및 학생상담센터의 교육 운영 및 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과제 결과발표도 진행됐다.

성동제 총장은 "포스트 혁신지원사업, LINC 3.0 사업 및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등 올해 진행되는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광양제철,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운영

광양제철소가 최근 '불링과 우리길 고운걸음 힐링 사업' 발대식을 갖고 지역 장애인들과의 사회적 연대감을 공고히 했다.

'불링과 우리길 고운걸음 힐링 사업'은 장애인들에게 불링, 걷기 등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포스코 직원들의 급여 1%로 조성된 '포스코1%나

눔재단'에서 5,000여만 원,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 내년 11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과 가족 여러분이 걷기와 불링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심신의 회복과 정서적인 안정을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